

만만찮은 UAE 평가전 슈틸리케, 누굴 올릴까?

콕대휘 파트너 장현수 또는 홍정호 유력
미얀마전 염두...많은 인원 테스트 무리



축구국가대표팀은 9일(한국 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 준비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11일 오후6시20분 팔라툼푸르 사알람경기장에서 UAE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사진) 대표팀 감독은 이번 평가전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1차전 미얀마전에 대비해 팀을 꾸렸다. 지난해 슈틸리케호 출범 이후 팀의 주축을 이뤘던 선수들 중 다수가 부상과 기초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합류하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이번 원정을 떠났다. 몇몇 포지션에선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앙수비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을 새로 정해야 한다. 포백을 기준으로 중앙수비수 2명 중 콕대휘(35·알 힐랄)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가 관심사다. 장현수(24·광저우 푸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그동안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으로 뛴 기성용(26·스완지 시티)과 박주호(28·마인츠)가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멀티 포지셔닝이 가능한 장현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홍정호(26·아우크스부르크)가 콕대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UAE전을 통해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평가전을 테스트 무대로 자주 활용했다. UAE전에서도 A매치 경험이 적은 몇몇 선수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팀 UAE의 전력에 고려하면 많은 인원을 테스트 차원으로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UAE는 개인기가 좋은 공격수들을 두루 보유한 팀으로, 1월 호주아시아컵 8강전에서 일본을 꺾기도 했다. 잦은 선수 교체로 팀워크가 흔들리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미얀마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경기다. 상대가 약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승점 3을 챙겨야 한다. UAE와의 평가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미얀마전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도 있다. 슈틸리케 감독이 UAE를 상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슈틸리케 새 킬러 이용재 “열심히 뛰어 수비도 가담”

축구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은 1월 2015호주아시아컵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이정협(24·상주상무)을 ‘깜짝 발탁’한 바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12월 제주 전 지훈전에서 이정협의 성실한 훈련태도와 부지런한 움직임을 높이 샀다.

대표팀은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평가전(말레이시아 팔라툼푸르)을 치른 뒤 16일 태국 방콕에서 미얀마와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를 벌인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아시아지역 2차예선 대표팀 선발에서도 스트라이커 자리에 깜짝 발탁을 감행했다. 그 주인공이 이용재(24·V-바렌 나가사키·사진)다. 이용재는 소속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J2리그(일본프로축구 2부리그) 16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용재는 인종아시아게임 때부터 지켜본 선수다. 일본에 가서 이용재를 직접 보고 오기도 했다. 제주 전지훈련 때도 열심히 했다.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선수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무명의 공격수’였던 이정협이 아시아컵을 통해 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꿰찬 것과 같이 이용재에게 6월 2차례의 A매치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용재는 “대표팀에 뽑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감독님의 칭찬에 감사했다. 이제야 내가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할 차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다. 평소대로 열심히 상대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수비까지 가담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지석 기자 stop@donga.com

조소현 “마르타에게 두번 당하지 않겠다”

브라질전 앞둔 女 축구 캡틴의 각오

12년 전 마르타 활약 브라질에 완패 아픔
마르타 득점·도움 봉쇄...더이상 실패 없다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조소현(27·현대제철)이 2003미국월드컵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소현은 2015캐나다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 브라질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9일(한국 시간)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장 입성 소감에 대해 “특별함보다 팬잖은 것 같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월드컵 무대에서 여자대표팀의 사상 첫 승을 향한 투지만큼은 뜨거운 열정을 내비쳤다. 특히 첫 상대가 12년 전의 아픔을 되풀이해야 하는 브라질이라 더욱 그런 듯했다.

한국은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던 2003년 미국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브라질을 만나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조소현(왼쪽)이 2015캐나다여자월드컵 조별리그 E조 브라질과의 1차전을 하루 앞둔 9일(한국 시간)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배들의 12년 전 패배를 갚아주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오른쪽은 2003년 미국월드컵 본선 한국전에서 골을 넣었던 현 브라질대표팀의 에이스 마르타.



0-3으로 완패한 바 있다. 지금도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로 꼽히는 ‘여자 펠레’ 마르타(29)가 12년 전 한국의 굴망을 흔들었다. 결국 한국은 B조(브라질·프랑스·노르웨이)에서 3전패

로 일찌감치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실패의 아픔은 그때까지다. 12년이 흐른 지금, 브라질에만 좋았던 기억을 지워야 할 때다. 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브라질의

마르타는 이번 대회에서도 미국월드컵 때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해 조소현은 “마르타에게는 좋은 기억일 수 있겠지만”이라며 2번의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마르타가 득점과 도움을 하지 못하도록 대표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 선수들을 상대로 꼭 이기고 싶다”며 굳은 결의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31일 강호 미국과의 친선 경기를 0-0 무승부로 마친 것이 브라질전을 앞둔 우리 여자대표팀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더욱 끌어올린 요소가 됐음도 알렸다. 조소현은 “미국전을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며 “준비한 만큼 잘 돼 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브라질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골”이라며 다시 한번 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스위스의 라첼 리나스트(오른쪽)가 9일(한국 시간) 밴쿠버에서 열린 2015캐나다여자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일본의 오기미 유키에 앞서 헤딩으로 볼을 따내고 있다. 지난 대회 우승팀 일본이 1-0으로 이겼다. 밴쿠버(캐나다) | AP뉴시스

메간 래피노 멀티골...미국, 호주 꺾고 산뜻한 출발

디펜딩 챔프 일본, 스위스에 1-0
스웨덴-나이지리아는 3-3 무승부



우승 후보 미국이 호주를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디펜딩 챔피언 일본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미국은 9일(한국 시간) 위니펙에서 열린 2015캐나다여자월드컵 조별리그 D조 호주와의 1차전에서 메간 래피노의 멀티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미국은 ‘죽음의 조’로 불리는 D조에서 승점 3을 챙기며 선두로 나섰다. 앞서 벌어진 같은 조 스웨덴-나이지리아전에선 양 팀이 6골을 주고받는 공방전 끝에 3-3으로 비겼다.

전반 12분 래피노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미국은 전반 27분 호주 리사 데 만나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16분 크리스틴 프레스의 골로 다시 앞서나갔다. 미국은 후반

33분 래피노의 썩기골로 호주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0-0으로 비긴 바 있다.

2011년 독일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일본은 밴쿠버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C조 1차전에서 전반 29분 뽀은 주장 미야마 아야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1-0 승리를 챙겼다. 일본은 낙승을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힘겹게 승점 3을 얻었다. 같은 조의 카메룬은 에콰도르전에서 가엘 은가나무트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에콰도르를 6-0으로 대파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화끈한 골 잔치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9일까지 사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8경기에서 모두 33골이 터져 경기당 4골 이상이 쏟아지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오바마 대통령, G7 회담서 FIFA 문제 언급...비리 수사 더 커지나?

“진실한 운영 중요”...유럽언론 집중조명
남아공월드컵 의혹 속 확대 수사 주목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54·사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정직한 운영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최근 FIFA 전현직 집행위원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IFA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해 유럽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AP, AFP 등 유력 통신사들과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9일(한국 시간) “독일 크린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담에 참가한 오



바마 대통령이 유럽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FIFA에 진실한 운영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FIFA가 투명성, 진실성, 책임감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축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

했고, 국가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다. 축구를 관장하는 FIFA가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FBI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월드컵에서 매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축구가 바른 길을 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FBI와 검찰의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2022월드컵 유치과정뿐 아니라 2010년 아공월드컵 유치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사퇴를 선언한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까지도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항 고우열, 15라운드 최고의 선수



K리그 클래식 포항 고우열(25·사진)이 15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15라운드 위클리 베스트를 발표했다.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안은 고우열은 7일 탄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혼자 2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박주영(서울)과 이종호(전남)는 베스트 공격수로 뽑혔다. 미드필더에는 고우열을 포함해 모리츠(포항), 임선영(광주), 고요한(서울)이 선정됐다. 수비수로는 정동호(울산), 이지남(전남), 이강진(대전), 고광민(서울)이 뽑혔고, 골키퍼에는 김승규(울산)가 이름을 올렸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